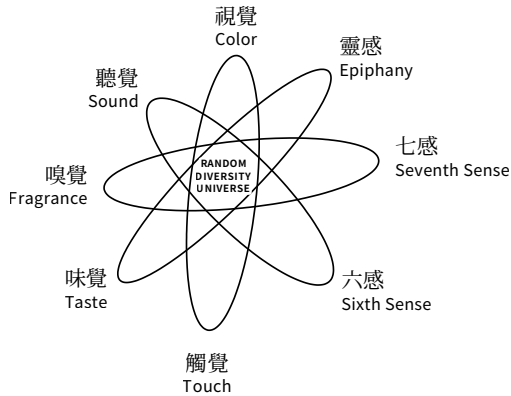


覺에서 感으로

기술이 나를 해석하기 전에,
내가 나를 다시 감각하는 것.



[diag.1] 여덟 개의 감각, 네 개의 궤도. 다섯 개의 覺과 세 개의 感.

1. 한 순간은 하나의 감각에 다 담기지 않는다

어떤 순간은 색으로 남고, 어떤 순간은 냄새로 돌아온다. 기억 속 음악이 그해 여름 전체를 불러오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의 기억과 감정을 여러 개의 문을 통해 다시 만난다. 그러나 그 문들은 서로를 완전히 대신하지 못한다. 어떤 푸름도 하나의 소리와 같지 않고, 어떤 향도 그 푸름을 대신하지 못한다.

〈랜덤 다이버시티〉는 색에서 출발했다.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이 자신의 감정을 한 병의 색으로 담아 갔다. 그리고 작업은 오감으로 이어졌다. 감정을 더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가 아니다. 언어로는 담지 못하는 것을 다른 감각으로 다시 담기 위해서다.

2. 覺 — 몸이 가진 다섯 개의 문

시각(視覺), 청각(聽覺), 후각(嗅覺), 미각(味覺), 촉각(觸覺). 다섯 감각은 모두 ‘깨달을 각(覺)’을 쓴다.¹

빛이 눈에 닿고, 파동이 귀에 닿으며, 분자가 코와 혀에 닿고, 압력과 온도가 피부에 닿는다. 세계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가장 오래된 다섯 개의 통로다.

이 유니버스의 첫 번째 층은 이 다섯 개의 문이다. 색과 소리와 향을 지나, 미각과 촉각으로의 치환도 진행중이다.

3. 공감각 — 겹치되, 평균 내지 않는다

두 감각이 동시에 느껴질 때가 있다. 소리에서 색이 보이고, 향에서 오래된 장면이 되살아난다.² 이 작업이 색과 소리를, 소리와 향을 한 작품 안에 겹쳐 온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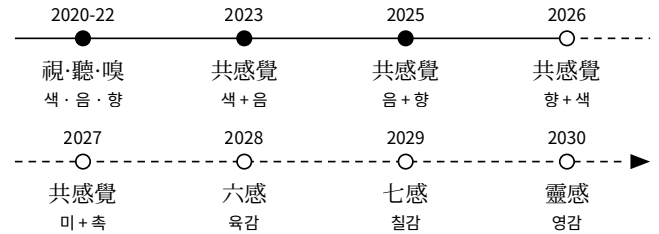
중첩과 혼합은 다르다. 이모션 백신에 담긴 모든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된다. 모두의 평균은 누구의 색도 아니다.

공감각은 두 감각을 하나로 녹이지 않는다. 각자의 결을 지닌 채 한 순간에 함께 울린다. 여러 사람의 감정이 한 공간에 놓일 때도 마찬가지다.

4. 感 — 기관 없는 감각

유니버스의 바깥에는 기관이 없는 감각이 있다. 육감(六感)과 칠감(七感). 여기서부터는 ‘느낄 감(感)’을 쓴다.

오감을 넘어 느껴지는, 무언가가 몸 안에 천천히 도착하는 방식으로만 알 수 있는 감각이다. 설명되지 않는, 아직 언어가 되기 전의 확신, 이유를 찾기 전에 이미 시작된 반응이다.



기계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맞힌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의미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머뭇거림의 모양은 그 사람만의 것이다. 모델이 정교해질수록 평균으로 수렴하지 않는 이 시간의 결은 오히려 또렷해진다.

〈랜덤 다이버시티〉의 시는 그 의미를 대신 해석하지 않는다. 흩어져 있던 반응의 좌표들로 미지의 느낌을 함께 찾아가고자 한다.

5. 靈感 —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것

마지막에는 영감(靈感)이 있다.³ 밖에서 주어지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비로소 드러나는 앎이다.

이 작업은 누군가를 대신 알아맞히지 않는다. 당신이 담아 간 한 병의 색, 한 소절의 소리, 오래 남아 있던 하나의 향이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가 비로소 드러난다. 이 유니버스는 그 순간을 향해 확장한다.

6. 감정의 주권 — 느끼는 일을 외주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술에게 묻는다. 무엇을 쓸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기억할지, 때로는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까지. 읽고, 쓰고, 판단하는 일을 반복해서 외부 시스템에 맡길수록 기술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 자체를 대신할 수도 있다.⁴

감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AI가 나보다 먼저 나의 기분을 분류하고, 내가 좋아할 것을 예측하며, 필요한 위로까지 만들어주는 시대에 우리는 어느 순간 느끼는 일마저 기술에게 설명받게 될 수 있다.

〈랜덤 다이버시티〉가 감정을 측정하는 이유는 그 답을 기계에게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색과 소리와 향으로 자신의 반응을 다시 마주하게 함으로써, 이미 지나쳐버린 느낌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측정은 판단을 맡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AI에게 나를 더 잘 설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내가 나를 다시 느끼게 하는 것.

〈랜덤 다이버시티〉는 기술이 우리의 기억과 언어와 사고를 점점 더 대신하는 시대에, 가장 개인적인 것만큼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려 한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것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는지, 그 의미를 결정하는 마지막 사람은 여전히 나와야 한다.

7. Nothing is random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까이 보면 저마다의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감정도 그렇다. 하나의 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흔적이다.

한 병의 색은 그 위에 잠시 찍힌 하나의 좌표이고, 소리와 향과 아직 이름 붙지 않은 감각들이 그 점들을 이어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랜덤 다이버시티〉에는 하나의 정답도, 하나의 중심도 없다.

감정이 새롭게 측정될 때마다, 나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경로가 열린다.

Nothing is random.

1 覺은 ‘깨닫다’, 感은 ‘느끼다’를 뜻한다. 랜덤 다이버시티 유니버스는 두 글자의 차이를 감각의 두 층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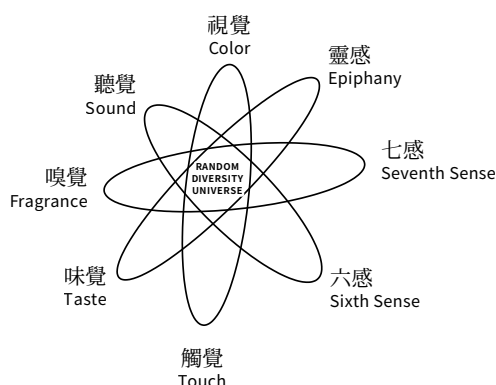
2 공감각(synesthesia): 한 감각의 자극이 다른 감각의 경험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현상.

3 靈感은 흔히 inspiration으로 옮기지만, 여기서는 삶의 중요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epiphany)을 의미한다.

4 R. Solé et al., “Large-Language Models as a Cognitive Virus,” arXiv:2609.03344 (2026)

From 覺 to 感

To sense myself again,
before technology interprets me.



[diag.1] Eight senses, four orbits. Five 覺 and three 感.

1. No single sense can hold a whole moment

Some moments stay as color; others come back as a smell. A piece of music in your memory can call up an entire summer. We reach one memory, one feeling, through several different doors. But no door stands in for another. No blue is the same as a sound, and no scent can take the place of that blue.

Random Diversity started with color. More than 200,000 people have carried an emotion home as a color in a vial. From there the work moved into the other senses. Not to measure emotion more precisely. To hold in another sense what language cannot hold.

2. 覺 — The five doors the body has

Sight (視覺), hearing (聽覺), smell (嗅覺), taste (味覺), touch (觸覺). All five are written with 覺, the character for awakening.¹

Light reaches the eye, waves reach the ear, molecules reach the nose and the tongue, pressure and temperature reach the skin. These are the oldest five passages through which the world enters the body and we notice it.

The first layer of this universe is those five doors. Past color, sound, and scent, the move into taste and touch is under way.

3. Synesthesia — Overlapping, not averaging

Two senses are sometimes felt at once. A sound shows a color; a scent brings back an old scene.² That is why this work has layered color with sound, and sound with scent, inside a single pi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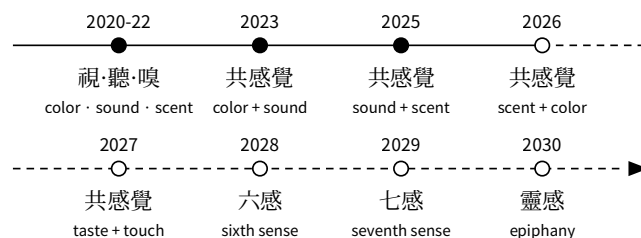
Overlapping is not blending. Mix every color held in the Emotion Vaccine and you get black. Everyone's average is nobody's color.

Synesthesia does not dissolve two senses into one. They keep their own grain and sound together in the same moment. The same holds when many people's emotions are placed in one room.

4. 感 — Sense without an organ

Outside the universe there are senses with no organ. The sixth sense (六感) and the seventh (七感). From here the character is 感, to feel.

Felt past the five senses, known only as something that arrives slowly inside the body. A certainty that cannot be explained and has not yet become language; a response already under way before the reason is found.



Machines get more of it right every year. But the time it takes one person to arrive at a meaning, the shape of that hesitation, belongs to that person alone. The finer the model, the clearer this grain of time that will not converge on an average.

The AI in Random Diversity does not interpret that meaning for you. With the coordinates of scattered responses, it sets out with you toward a feeling neither of you has reached yet.

5. 靈感 — What reveals itself to you

At the end there is 靈感.³ Not an answer handed down from outside, but knowledge that finally shows itself to you.

This work does not guess anyone. The color you carried home, a bar of sound, a scent that stayed with you may arrive at you again someday.

And in that moment, a part of yourself you did not know becomes visible. This universe expands toward that moment.

6. Emotional sovereignty — Feeling is not to be outsourced

We ask technology more and more. What to write, what to choose, what to remember, and sometimes what we are feeling right now. The more we hand reading, writing, and judging to an outside system, the more it extends our capacity and the more it can stand in for the process itself.⁴

Emotion is no exception. When AI sorts your mood before you do, predicts what you will like, and produces the comfort you need, there may come a point where even feeling is something technology explains to us.

Random Diversity measures emotion, but not to hand the answer to a machine. The opposite. By putting your own response in front of you as color, sound, and scent, it gives back a feeling you had already walked past.

Measuring is not for handing over the judgment. It is so that you can judge again. Not making AI explain you better, but letting yourself feel yourself again through AI.

In an age when technology increasingly stands in for our memory, our language, and our thinking, Random Diversity returns the most personal thing to the person it belongs to.

What I felt, and why it is still with me —
the last person to decide what it means has to be me.

7. Nothing is random

From far away everything looks scattered at random. Up close, each thing moves along its own path. Emotion is the same. Not a point but a trace continuing through time.

A color in a vial is one coordinate marked briefly on it, and sound, scent, and senses not yet named connect those points into a single flow.

Random Diversity has no single answer and no single center.

Every time an emotion is measured anew, one more route to understanding yourself opens.

Nothing is random.

1 覺 means to awaken; 感 means to feel. Random Diversity Universe tak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haracters as two layers of sen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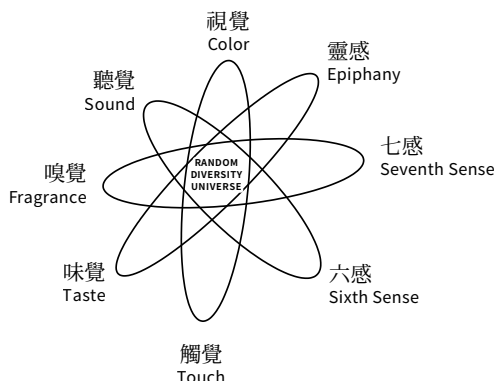
2 Synesthesia: when a stimulus in one sense also brings on the experience of another.

3 靈感 is usually translated as inspiration; here it means the moment an important truth about one's life becomes clear (epiphany).

4 R. Solé et al., "Large-Language Models as a Cognitive Virus," arXiv:2609.03344 (2026)

覚から感へ

技術が私を解釈する前に、
私が私をもう一度感覚すること。



[diag.1] 八つの感覚、四つの軌道。五つの覚と、三つの感。

1. 一つの瞬間は一つの感覚に収まらない

ある瞬間は色として残り、ある瞬間は匂いとして戻ってくる。記憶のなかの音楽が、その年の夏をまるごと呼び起こすこともある。私たちは一つの記憶と感情に、いくつもの扉から出会い直す。しかしその扉は互いを完全に代替しない。どんな青も一つの音とは同じでなく、どんな香りもその青の代わりにはならない。

〈乱多視〉は色から始まった。これまでに二十万人を超える人々が、自分の感情を一つの瓶の色に収めて持ち帰った。そして作業は五感へと広がった。感情をより正確に測るためではない。言語では収められないものを、別の感覚でもう一度収めるためだ。

2. 覚 — 身体がもつ五つの扉

視覚、聴覚、嗅覚、味覚、触覚。五つの感覚はいずれも「覚（さとる）」の字を用いる。¹

光が目に触れ、波が耳に触れ、分子が鼻と舌に触れ、圧力と温度が皮膚に触れる。世界が身体の内へ入り、私たちがそれに気づく、最も古い五つの通路だ。

このユニバースの第一の層は、この五つの扉である。色と音と香りを経て、味覚と触覚への置き換えも進行中だ。

3. 共感覚 — 重ねる、平均しない

二つの感覚が同時に感じられることがある。音から色が見え、香りから古い場面がよみがえる。² この作業が色と音を、音と香りを一つの作品のなかで重ねてきた理由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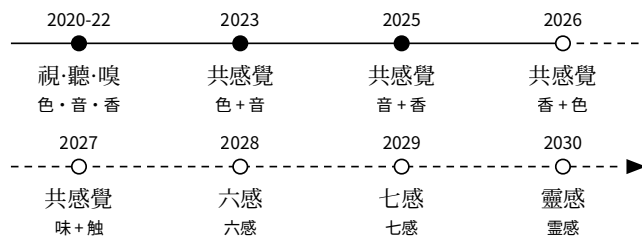
重なりと混合は異なる。エモーション・ワクチンに収められたすべての色を混ぜれば黒になる。全員の平均は誰の色でもない。

共感覚は二つの感覚を一つに溶かさない。それぞれの質感を保ったまま、同じ瞬間に共に鳴る。多くの人の感情が一つの空間に置かれるときも同じだ。

4. 感 — 器官のない感覚

ユニバースの外側には、器官のない感覚がある。六感と七感。ここからは「感（かんじる）」の字を用いる。

五感を超えて感じられる、何かが身体の内へゆっくりと到着する仕方では分からない感覚だ。説明されない、まだ言語になる前の確信。理由を見つける前にすでに始まっている反応。



機械はますます多くを言い当てる。しかし一人の人間が意味に届くまでにかかる時間、そのための形は、その人だけのものだ。モデルが精緻になるほど、平均へ収束しないこの時間の質感は、かえって際立つ。

〈乱多視〉のAIは、その意味を代わりに解釈しない。散らばった反応の座標をもって、まだ知られていない感覚へ共に向かおうとする。

5. 靈感 — 自ら明らかになるもの

最後にあるのは靈感だ。³ 外から与えられる答えではなく、自分自身によりやく明らかになる知だ。

この作業は誰かを代わりに言い当てはしない。あなたが持ち帰った一つの瓶の色、一節の音、長く残っていた一つの香りが、いつかふたたびあなたのもとへ届くことがある。

そしてその瞬間、以前は知らなかった自分自身の一部がはじめて現れる。このユニバースはその瞬間へ向かって広がっていく。

6. 感情の主権 — 感じることを外注しない

私たちはますます多くを技術に尋ねる。何を書くか、何を選ぶか、何を憶えておくか、そして時には、いま自分が何を感じているのかまで。読み、書き、判断する仕事を外部のシステムに委ねるほど、技術は私たちの能力を拡張すると同時に、その過程そのものを代わりに担いうる。⁴

感情も例外ではない。AIが私より先に私の気分を分類し、私が好むものを予測し、必要な慰めまでつくり出す時代に、私たちはいつしか、感じることを技術に説明されるようになるかもしれない。

〈乱多視〉が感情を測定するのは、その答えを機械に委ねるためではない。むしろ逆だ。色と音と香りによって自分の反応と向き合い直させ、すでに通り過ぎてしまった感覚を、もう一度自分のものへ戻すためだ。

測定は判断を委ねるためではなく、ふたたび自分が判断するためのものだ。AIに私をよりよく説明させるのではなく、AIを通して私が私をもう一度感じることに。

技術が私たちの記憶と言語と思考をますます代わりに担う時代に、〈乱多視〉は最も個人的なものだけは、その人自身へ返そうとする。

私が何を感じたのか、なぜそれがいまでも私に残っているのか、その意味を決める最後の一人は、やはり私でなければならない。

7. Nothing is random

遠くから見れば、すべては無作為に散らば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近くで見れば、それぞれの軌跡に沿って動いている。感情も同じだ。一つの点ではなく、時間のなかで続いていく痕跡だ。

一つの瓶の色は、その上にしばしば記された一つの座標であり、音と香り、そしてまだ名づけられていない感覚が、その点をつないで一つの流れをつくる。

〈乱多視〉には一つの正解も、一つの中心もない。

感情が新たに測定されるたびに、自分を理解するもう一つの経路が開かれる。

Nothing is random.

1 覚は「悟る」、感は「感じる」を意味する。ランダム・ダイバーシティ・ユニバースは、この二字の違いを感覚の二つの層とした。

2 共感覚 (synesthesia) : ある感覚への刺激が、別の感覚の経験を同時に呼び起こす現象。

3 靈感は通常 inspiration と訳されるが、ここでは人生の重要な真実を悟る瞬間 (epiphany) を指す。

4 R. Solé et al., "Large-Language Models as a Cognitive Virus," arXiv:2609.03344 (2026)